



포스코, ‘잭니클라우스GC’ 인수 홀당 160억 넘어…“역대 최고액”

송도 상징 골프장…500억 추가 투자해 인수 강행

홀당 160억 원이 훌쩍 넘는, 골프장 거래 사상 ‘역대 최고가’다.

포스코그룹이 인천 송도에 있는 18홀 회원제 명문 골프장 잭니클라우스GC를 약 3000억 원에 인수한다.

16일 포스코그룹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와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포스코그룹의 부동산 관리회사인 포스코O&M은 최근 잭니클라우스GC 인수를 위해 우선매수권을 행사했다. 이에 앞서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칸서스자산운용은 잭니클라우스GC 매각 본입찰에 참여해 3000억 원대 초반의 인수가를 제시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매각은 예비인수자를 미리 정해놓고 입찰을 부치는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당초 2650억 원의 가격을 써냈던 예비후보자 포스코O&M이 칸서스가 제시한 가격을 수용하면서 최종 인수자로 낙점됐다. 포스코그룹 입장에선 기존 금액보다 500억 원 가까이 추가 투자하면서 인수를 강행한 것이다.

잭니클라우스GC이 위치한 송도국제도시 개발에 참여했던 포스코그룹은 송도를 상징하는 명문 골프장을 손에 넣기 위해 처음부터 강한 인수 의지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그룹 계열사인 포스코건설은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 지분 29.9%를 보유한 2대 주주이고, NSIC는 잭니클라우스GC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홀당 160억 원이 넘는 금액은 작년 3월 국내 사모펀드 센트로이드인베스트먼트가 경기 이천시에 있는 18홀 사우스스프링CC를 인수하며 지급한 기존 최고액 홀당 95억6000만 원을 훌쩍 넘는 역대 최고액이다.

골프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 골프장이 평일에도 부진이 어려울 정도로 호황을 맞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호황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사실 짐작하기 힘들다”면서 “홀당 160억 원 이상에 거래됐다는 것은 그린피뿐만 아니라 골프장 가격도 비정상적인 상태로 높아져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아우디, ‘뉴 아우디 A3 40 TFSI’ 사전계약 실시

아우디 코리아가 16일부터 ‘뉴 아우디 A3 40 TFSI’ (사진)와 ‘뉴 아우디 A3 40 TFSI 프리미엄’의 사전계약에 돌입했다.

2세대 ‘뉴 아우디 A3’는 더욱 스포티한 디자인과 강화된 성능, 이전 모델 대비 4cm 길어진 전장, 2cm 넓어진 폭, 1cm 높아진 전고로 보다 여유 있는 레그룸과 헤드룸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뉴 아우디 A3 40 TFSI’는 기본형과 프리미엄의 2가지 트림으로 출시된다. 2.0L 직렬 4기통 가솔린 직분사 터보차저 엔진과 7단 S트론닉 자동 변속기를 조합해 이전 모델 대비 약 20 마력이 향상된 204마력으로 역동적이고 스포티한 주행성능을 자랑한다. 정지상태에서 100km/h까지 가속 시간은 7초, 최고 속도는 209km/h, 연비는 복합 연비 기준 13km/리터(도심: 11.4km/리터, 고속도로: 15.5km/리터).

강화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업그레이드된 안전 및 편의 기능과 운전자 보조시스템 등 풀 사이즈 세그먼트에서만 볼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탑재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1주택자, 14억 원까지 중부세 면제”

(올해 한시 적용)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

윤석열 정부가 자유로운 시장경제에 기반해 경제운용을 정부에서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을 16일 발표했다. 보유세·중부세 및 대출규제 완화, 법인세 인하, 상속세 납부 유예, 법인 이중과세 완화, 중부세 하향 등이 핵심 내용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우크라이나 사태,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인플레이션 충격 등으로 인한 저성장을 극복하고 온전한 경제 회복을 이루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사·상속 시 1세대 1주택자 인정 생애 첫 구입자 LTV, 최대 80%까지 법인세, 5년 만에 최고세율 22%로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 유예 가능 투상세 폐지…반도체 등 세제 지원

●1주택 보유세·중부세·대출규제 완화

우선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중부세)를 인하하고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민생 안정 정책을 내놨다.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춘다. 100% 적용하던 중부세는 60%로 하향 조정하되, 특별공제 3억 원을 한시 적용해 중부세 과세 기준선을 올해 한시적으로 기존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린다. 또한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거나 상속주택, 지방 저가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1세대

1주택자는 중부세 과세 때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는 세제 개편도 이뤄진다.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올해 3분기부터 지역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최대 80%로 상향한다. 대출한도도 기존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린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도 앞으로는 6억 원 한도 내에서는 지역, 집값, 소득과 관계없이 LTV를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연 소득 범위 내로 제한된 신용대출 한도 규제도 7월부터 폐지된다.

●법인세 최고 세율 22% 인하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2%로 인하한다. 법인세 최고 세율 조정은 2008년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이후 5년 만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째 세법 개정을 통해 과세표준 3000억 원 이상 구간을 신설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했다. 정부안대로 세법이 개정되면,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 지 14년 만에 법인세 감면이 이뤄지게 된다.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기업 승계를 받는 경우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하는 납부 유예 제도를 신설한다. 상속인은 상속 재산 중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한 가업상속

공제와 상속세 납부 유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재계의 요구사항이던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투상세)도 폐지한다. 투상세는 기업이 소득 중 일정액을 투자나 임금 증가, 상생 협력에 쓰지 않을 경우 미달액(미환류소득)의 20%를 법인세로 추가 과세하는 제도다. 정책 효과는 낮은데 기업 부담만 늘린다는 점에서 ‘페널티 과세’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늘리기 위해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은 현행 6~10%에서 8~12%로 상향기로 했다. 이는 기존 중견기업에 적용했던 세액공제율과 같은 수준이다. 아울러 반도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대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는 현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60%에서 80%로 높인다. 과거에 손실을 본 기업은 결손금을 최대 15년까지 이월해 과세표준에서 공제해 주는데, 이때 소득의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6일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 방향”이라고 호평하며 “경제계는 정부의 이러한 경제운용 방향에 부응해 투자를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美연준 ‘자이언트스텝’…불확실성 해소로 세계증시 ‘반등’

연준 의장 “인플레이션 낮추는 데 전념” 7월에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높아 한국도 0.5%p 올리는 빅스텝 예상 대출 이자상환 부담 등 후폭풍 우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이하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16일(한국시간) 기준금리를 한번에 0.75%p를 올리는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한 가운데, 글로벌 증시와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글로벌 증시는 ‘안도 랠리’

미국 연준의 자이언트스텝은 1994년 11월 이후 27년7개월 만이다.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 0.75~1.00%에서 1.50~1.75%로 크게 상승했고, 한국(1.75%)과 미국(상당 기준)의 기준금리가 같은 수준이 됐다.

미국 연준이 자이언트스텝을 결정한 데는 최악으로 치닫는 인플레이션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기 대비 8.6% 급등해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통상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장에 풀린 유동성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물가상승 압력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다시 낮추는 데 강력하게 전념한다”고 했다. 또 “분명히 0.75%p 인상 폭은 이례적으로 크며 이런 규모의 움직임은 흔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관점에서 봤을 때, 다음 회의에서 0.50%p 혹은



16일(한국시간) 미국 워싱턴DC 연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왼쪽)과 16일 오전 전 거래일보다 상승하며 출발한 코스피 지수가 표시된 서울 중구 하나은행 주식전광판. AP 뉴스



0.75%p 인상이 가능성이 높다”고 해 7월 열리는 FOMC에서도 자이언트스텝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미국 연준의 자이언트스텝에도, 글로벌 증시는 ‘안도 랠리’를 펼쳤다. 미국 뉴욕증시의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03.70p(1.00%) 오른 3만668.53,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54.51p(1.46%) 상승한 3789.99, 나스닥 지수는 270.81p(2.50%) 급등한 1만1099.15에 장을 마감했다.

국내 증시도 소폭 상승해 16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03p(0.16%) 오른 2451.41, 코스닥은 2.74p(0.34%) 오른 802.15에 마감했다. 이는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이 경기와 인플레이션 억제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진행됐고, 이미 증시에 긴축 우려가 반영이 된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반등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 금리 인상에 영향

미국 연준이 자이언트스텝이라는 초강수를 둔만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

상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한국은행은 연준보다 기준금리를 높게 유지하는 동시에 금리 인상 시점도 한발 빠르다. 이는 미국보다 금리가 낮을 경우 내외 금리차로 외국인 투자금의 유출로 인한 증시 하락 등의 가능성을 막기 위한 조치다.

현재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같은 수준이 된 만큼, 당장 한국은행에 기준금리 인상폭 확대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행은 7월14일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p 올리는 빅스텝이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통계청의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4%로,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치인 2%를 훨씬 웃돌며 물가상승의 경고등이 켜진 것도 기준금리 인상의 원인으로 꼽힌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16일 빅스텝 가능성에 대해 “다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까지 4주가 남아 있어 그 사이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시장 반응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히,

빅스텝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런 상황에서 상환능력 이상으로 대출을 끌어다 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과 ‘빚투(빚내서 투자)’족 및 코로나19 여파로 대출이 늘어난 자영업자의 대출 이자 상환 부담 등 후폭풍이 점쳐진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준금리를 0.25%p 올리는 베이비시텝 시 가계가 부담하는 연간 이자는 약 3조2000억 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출자 1인당 더 내야 하는 이자는 연간 약 16만1000원 정도다. 이를 빅스텝과 자이언트스텝에 적용 시 각각 2배와 3배의 수치가 나온다.

여기에 금리 상승의 영향을 바로 받는 변동금리 가계대출 비중이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의 76.1%에 달할 정도로 높은 것도 문제다.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저금리 기조가 이어온 탓에 대출자들이 굳이 고정금리를 이용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대출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정정국 기자 jjay@donga.com